



청송심씨 심벌마크

#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 장 심대평  
편집인 : 문화이사 심갑택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 화 : (02)2267-7857  
(02)2267-9339  
F A X : (02)2269-7755  
인 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31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18년 5월 31일(목)

## 2018년도 제48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日時 : 2018년 4월 17일(화) 11시40분

·場所 : 성균관파티움(구 유림회관)

·參席人員 : 322명

### 주요 보고사항

1. 연천 4세조 청성백 재각 『청성재』준공
2. 5처 묘소 2단소 종재실사 완료
3. 함열 2세조 재실 현판정비 및 위토환수 공적비 설치
4. 장학사업 현황 및 제향봉행에 관한 사항

### 의 결 사 항

1.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
2.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3. 정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당 초	개 정 안
제6장 회장단 회의 第21條(會議) 2.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出席으로 開會하고,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監事는 案件에 대한 意見陳述을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이 없다.	제6장 회장단 회의 第21條(會議) 2.會議는 在籍會員 過半數 出席(委任者 包含)으로 開會하고,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監事는 案件에 대한 意見陳述을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이 없다

### ■ 유공자 표창수여

송조돈목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대중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심일용 부회장, 심정보 부회장, 심기섭 이사, 심재석 이사 등 4명의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 수여

## 제6대 심대평 회장 취임사



심대평  
대중회 회장

존경하는 종친 어른!  
사랑하는 靑松沈門 일가 여러분!  
오늘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장직무를 맡아 봉사하게 된 26세손인 大平입니다.

오늘 전국의 일가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이 총회의 자리에서 대중회 회장으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만, 지난해까지 50여년을 공직에서 일해 오면서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 종사에 자주 참여치도 못했던 저에게 중책을 맡아 沈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한편으로 전임 갑보 회장님께서는 오늘까지 감사, 부회장, 회장을 맡아 48년여 동안 대중회 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특히 沈門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4세조 청성백 재각건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는데, 건강문제 등으로 임기 도중에 사임하시게 되어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일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전임 갑보 회장님의 빠른 패유를 받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일가 여러분! 지금까지 역대 대중회 회장님들께서는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으로 오늘날 대중회가 대중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저 또한 오늘 6대 회장직을 시작하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沈門의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면서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상(祖上)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선사(爲先事)에 힘쓰고, 일가 간 화합을 도모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중중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송조돈목 정신을 바탕으로 조상님을 잘 섬기고 일가 간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할 것이며, 전국의 지파종회 종친들 상호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 화목을 이루면 제향봉행에도 많은 일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지방종회, 파종회, 청년회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靑松沈門이 더욱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전국규모의 이벤트 추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둘째, 전임 회장들께서 추진해 오신 영재육성 장학사업과 뿌리교육을 활성화하여 청송심문의 역사와 전통이 미래에도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뿌리교육은 우리 심문의 젊은 세대들이 문중의 역사를 배우고, 조상님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종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과 沈門의 전통이 후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뿌리교육을 영재육성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에서 올라온 沈門의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면학에 힘써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 파종회, 지파종회와 협력하여 가칭 '청송심문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靑松沈門의 家門을 빛낸 선조분들의 사적과 유물 등을 길이 보전하고, 자지손손 후예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뿌리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청송심문 역사관 설립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기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아쉬움이 많은 현재의 대중회 찬경회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친근하게 대중회를 방문하여 沈門의 발전을 위해 격의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을 모색하

여, 주요 파종회, 지파종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종재관리와 회계업무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발생했던 회계부정 사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에서 대중회의 각종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통계청 총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 靑松沈氏는 240,768명으로 전국 姓氏 중 38째 순위입니다만, 북한과 중국교포와 고려인 등 각처에 거주하는 沈氏 등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심씨총연합회가 태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대중회에도 참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 청송심문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 심씨 일가와 교류하고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송심씨의 뿌리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한·중 沈氏 교류와 우호증진방안도 연구 검토해 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과제들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문회의, 이사회회의 논의와 총회의 동의를 구한 연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일가 여러분!

오늘은 대중회의 지난해 결산과 올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집행한 결산자료와 올해 추진 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정기총회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일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전국 25만 靑松沈門 가족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7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우리 靑松沈家 이야기(3)

합문지후공(諱:淵) 봉익대부공(諱:晟)

글 읽으며 태평연월 기다리리

- 2세조 합문지후공과 봉익대부공 형제



심 후 섭 (沈厚燮)

중보편집위원  
아동문학가·교육학박사  
전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현 사단법인 우리예절교육원 원장

시조 홍부(洪孚) 할아버지는 아들을 둘 두셨어. 맏이는 고려 때에 합문지후(閤門祗候) 벼슬을 지내신 연(淵) 할아버지이고, 둘째는 고려 때에 봉익대부(奉翊大夫) 벼슬을 지내신 성(晟) 할아버지야.

우선 합문지후공께서 생전에 읊으신 '안분음(安分吟)'이라는 시 한 수를 읽어보자. 이 시를 음미해 보면 그저 욕심 없이 책이나 읽으며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하신 할아버지의 평안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 평생 살림살이 위하는 일 별로 없었네(平生性癖小營爲)

그저 하늘의 처분 믿고 따를 뿐(一任天公處分宜)  
고사리 산속 가득하여 글만 읽어도(薇蕨滿山寧學圃)  
등나무와 칙렁쿨 스스로 울타리를 이루었네(藤蘿繞屋自成籬)

훈풍은 일찍이 약속한 바 없어도 나를 찾아와주고(風無夙約時時到)

명월도 기약한 바 없었건만 저녁마다 나를 따르네(月不相期夜夜隨)

청컨데 손님네들이여 세상사 나에게 말하지 마오(外客休言塵世事)

북항에 베게 높여 누워있으면 옛 성현이 꿈에 보이나니(北窓高臥夢軒羲)

지후공 할아버지는 고려 말기에 관직에 올라 궁중에서 의식(儀式)을 담당하는 관청인 합문(閤門: 오늘날의 총무처)에서 지후(祗候: 정7품) 벼슬을 하시다가 뒤에 경상도 산청현감(山淸縣監)을 지내셨어.

그래서 퇴임하시고도 산수(山水)가 아름다운 산청 땅 석담촌(石畚村) 자연동(紫烟洞)에 머물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신 거야.

지후공 할아버지의 묘소는 지금 전북 익산군 함열읍 남당산(南堂山) 진좌(辰坐; 서북향)에 할머니와 함께 아래 위로 모셔져 있어. 할아버지 산소가 처음부터 이곳에 계셨던 것은 아니야. 처음에는 여생을 보내시다가 별세하신 산천 땅에 모셔져 있었어.

그런데 지후공의 아드님이신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 용(龍) 할아버지께서 평소 친분이 두터우셨던 가정(稼亭) 이곡(李穀) 선생으로부터 남당산에 명당(明堂)이 있다고 소개를 받으셨어. 과연 그 자리는 여덟 명당에 든다는 천하길지(天下吉地)였어. 그러나 산청에서 먼 거리여서 당장 묘소를 옮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선 옷칠을 하여 잘 썩지 않는 판자를 묻고 돌레에 말목을 박아 묘소 표시를 해 두었어.

그리고는 아드님 형제분 즉 청성백, 악은공 할아버지에게 지후공 묘소를 장차 남당산으로 면례(緘禮)해 드리라고 유언하셨어.

그 뒤, 벼슬에 오르신 청성백 할아버지께서 1377년 봄 서해도 부원수겸 도순문사(西海道副元帥兼都巡門使)에 임명되시어 서해안으로 쳐들어온 왜구(倭寇)를 물리치고 개선하신 바

있었어. 이 때, 청성백 할아버지는 함열 땅에 들러 남당산을 찾으셨어. 그랬더니 아래쪽에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의 사당(祠堂)이 세워져 있었어. 그래서 이곳은 이미 우리 집안에서 할아버지 묘를 쓰기 위해 표(標)를 해 놓은 곳이니 사당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셨어. 그러자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김씨(金氏)들은 '선대부터 가문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사당 안에 있는 궤(櫃)를 열어보라는 유언(遺言)이 전해오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난 뒤에 대답하겠다.'고 하였어.

그리고는 '궤를 열어보니 이 땅에 묻혀있는 칠등(漆燈)은 없어지지 않으니 장차 심씨 문중에서 장례를 모신다는 요청이 있으면 즉시 승낙해 주어 별문지화를 면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며, '이는 이미 하늘이 정해 놓은 일이라 곧바로 사당을 옮겨 놓을 터이니 언제든지 면례토록 하시오.'라고 대답하여 원만하게 타협되었어. 그리하여 1377년 9월에 청성백 할아버지는 아우이신 악은공 할아버지와 함께 합문지후공 양위분 묘소를 남당산으로 옮기고 석물(石物)도 설치하셨어.

그런데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임진왜란을 비롯 많은 난리들을 겪으면서 자주 가뵙지 못하여 그만 실전(失傳)되고 말았어.

그 뒤, 전북 옥구군 임피(臨陂)에 사시던 16세 죽계공(竹溪公: 諱 圭)께서 청년시절인 1705년에 익산군 여산(礪山)으로 향시(鄕試)에 응시하러 가셨다가 이때 같은 여관에 묵었던 김인(金麟)이라는 사람이 '나의 선대 산소가 함열에 있는데 그 인근에 합문지후심공연지묘(閤門祗候沈公淵之墓)라고 쓴 묘갈(墓碣)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때 김인의 숙부가 들어와서 김인을 꾸짖으며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한 일이 있었어.

수상하게 여긴 죽계공께서 집에 돌아와 집안 어른인 준원(俊元)공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준원공께서는 김인의 아버지 김응삼(金應三)에게 아들을 보내어 자세한 사실을 질문하였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실을 서울의 우리 종중(宗中)에 알리어 유사(有司)를 함열로 보내어 질문하였으나 역시 얼버무리며 응답하지 않았어.

이는 지후공의 묘소에 강릉김씨들이 투장(偷葬)한 지가 이미 오래되고 묘갈(墓碣)과 지석(誌石)은 파내어 인근에 있는 연못에 던져 영구히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었어.

그 뒤, 15세 황해감사공(尙良)께서 전라도 담양군수(潭陽郡守) 재임 시에 정성을 다하여

탐문한 결과, 지석(誌石)이 연못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함열현감에게 고발한 뒤 1715년에 연못의 물을 퍼내고 드디어 지석을 찾아내셨어.

지석에는 석 줄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가운데 줄에는 '합문지후심연지묘(閤門祗候沈淵之墓)' 왼쪽에는 '屹山南堂山辰坐戌向(걸산남당산진좌술향)' 오른쪽에는 '洪武十年九月十二日葬(홍무십년구월십이일장)' 이라고 써여 있었어. 이 지석을 본 김응삼 일문도 감히 그 이상 숨길 도리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사실을 자백한 다음 투장한 묘를 모두 이장해 갔어. 그 뒤 14세 이조판서공(檀), 15세 황해감사공(仲良), 16세 장령공(尙允), 정언공(尙鼎) 등 각지의 여러 종인들께서 힘을 모아 아래 위 두 산소를 개봉(開封)하였는데 어느 산소가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인지는 분별할 길이 없었다고 해. 하는 수 없이 전과 같이 사초(莎草)하고 지석은 상석 밑에 묻었어.

이로써 실전된 지 실로 2백여 년 만에 비로소 봉분을 찾아 모시게 된 것이야.

1720년 17세 지산상공(壽賢)께서 호서지방(湖西地方)을 순찰하실 때에 만사상공(之源)의 외손인 전라감사공(李漢) 및 당시의 함열현감(崔祥)과 협력하여 석물을 갖추어 드렸어. 이 때에 황해감사공(仲良)께서 묘갈명(墓碣銘)을 짓고 대사간공(揆)께서 글씨를 써서 그해 8월 23일에 묘갈비(墓碣碑)를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

남당산소(南堂山所)의 수호관리와 제사절차는 청송 보광산소(普光山所)의 예에 의하여 호장(戶長)에게 일임하여 관리토록 하였어.

뒤에 20세 두실상공(象奎)께서 전라감영(全羅監營) 재임시 재각(齋閣)으로 영모재(永慕齋) 3칸을 세우셨는데, 1844년 현령공(宜益)께서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근무하실 때에 행당 7칸을 더 세우셨어.

1894년 갑오경장 이후로는 호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소수호와 향사를 산유사(山有司)가 담당해 왔으나, 지금은 대종회(大宗會)에서 주관하여 음력 3월 11일, 9월 11일에 춘추절사(春秋節祀)를 받들어 오고 있다.

그래, 우리 선조들은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 많은 애를 써오셨구나. 조상을 잘 모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바르게 안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봉익대부공(奉翊大夫公) 성(晟) 할아버지 산소는 지금까지도 실전된 상태야. 아마도 휴전선 북쪽에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해. 그래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양지리에 제단을 세워 향사(享祀)하고 있다.



합문지후공 남당산 묘소



봉익대부공 제향



# 청송심씨세고선(靑松沈氏世稿選)

## ■ 면암정공(面巖亭公)

휘(諱)는 구(溝)이고 자(字)는 위수(渭叟)다. 허강공(虛江公) 휘 덕부(德符)의 손자다. 음사(蔭仕)로 좌랑(佐郎)을 지냈으며, 후에 승지(承旨)에 추증되었다.

(諱溝 字渭叟 虛江公諱德符孫 蔭 佐郎 贈承旨)

면암정(面巖亭)에서

要津晚渡訪雲林 (요진만도방운림)  
느지막이 벼슬살이 마치고 숨어살 곳을 찾아가니

岩自天形我屋深 (암자천형아옥심)  
바위가 천연으로 만들어진 곳에 내 집이 으스스하다.

葵藿誠違憐白髮 (규곽성위련백발)  
임금을 향한 정성 어그러져 백발이 서글프더니

榛苓歌歇整團襟 (진령가힐정단금)  
미인 그리는 노래 부르고 나서 옷깃을 바로 하네.

烏傾簷桶來春信 (오경첨통래춘신)  
까마귀 절하는 처마에 봄소식이 전하는데

鹿守柴門帶夕陰 (녹수시문대석음)  
사슴이 지키는 사립문에는 저녁 어둠 깔리네.

一片寒山清介尙 (일편한산청개상)  
일편단심 겨울 산에서 맑은 절개를 숭상할 뿐

老夫非是愛時吟 (노부비시애시음)  
노부가 시 읊조리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네.

## ■ 공숙공(恭肅公)

휘(諱)는 회(滄)요, 자(字)는 청보(靑甫)다. 허강공(虛江公) 휘 덕부(德符)의 손자다.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했고 좌리 공신(佐理功臣)이 되었으며 청송부원군(靑松府院君)에 봉해졌다.

諱滄 字靑甫 虛江公德符孫 領議政 佐理功臣 靑松府院君

과녁에 활을 쏘는 일에 대한 應製詩三首 (射候應製三首)

응제시(應製詩) :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은 시를 이르는 말

첫째 수 其一

聖上臨觀德 (성상임관덕)  
성상께서 관덕정(觀德亭)에 임어하시니  
揖讓爭最難 (읍양쟁최난)  
공손하게 사양함은 가장 어렵게 여기는 일.  
立飲孰無慙 (입음숙무참)  
벌주 먹는 것 누구나 부끄럽게 여기지만  
正鵠心不閑 (정곡심불한)  
과녁 명중에는 그다지 마음을 쓰지 않는다네.

둘째 수 其二

河之清可俟 (하지청가사)  
황하가 맑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나니  
海晏波不拂 (해안파불불)  
바다가 고요해지니 파도도 일지 않네.  
微臣把葵心 (미신과규심)  
소신은 접시꽃처럼 해 바라는 마음이 있어  
自多逢舜日 (자다봉순일)  
요순시절 만난 것을 스스로 뿌듯해 합니다.

셋째 수 其三

一人得康寧 (일인득강녕)  
한 분께서 강녕(康寧)하시면  
兆民自阜成 (조민자부심)  
억조창생은 절로 부유해지는 법.  
阜成復阜成 (부성복부성)  
부유하고 더욱 부유하며  
康寧又康寧 (강녕우강녕)  
강녕하시고 또 강녕하소서  
聖德畫難工 (성덕화난공)  
성스러운 덕화는 그리려도 공교롭기 어렵고  
聖治圖未精 (성치도미정)  
성스러운 정치는 그리려도 정밀하지 못하다네.

## 沈영감 심민섭



중대산 입구 심문의 상징인 만지송

## 살의유머

## 한국과학기술원

어느 만원버스에 막 버스에 올라탄 할머니가 몹시 힘든 표정으로 자리를 찾는다.

할머니 바로 옆 두 자리 중에 통로 쪽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며 자리를 양보하자 그 할머니... "예구, 고마워 젊은이. 근데 대학생인가?"

"예."

"어디 다니지?"

"예, 전북대요."

"좋은데 다니네. 국립대라지?"

"(머쓱) 예."

"심성도 착하고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구먼. 생긴 것도 남자답고." 이어 할머니 창가 쪽에 앉아 책을 보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학생은 어느 대학 다니니?"

"예? 저 저요?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그러자 할머니...

"그러, 공부 못하면 얼른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 걱정과 비판 담당관

두 사람의 젊은 선비가 똑같이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한 사람은 긍정과 칭찬 담당관이 되고 한 사람은 걱정과 비판 담당관이 되었다.

그들의 직책은 둘 다 왕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20년 뒤 긍정과 칭찬 담당관은 영의정이 되었고 걱정과 비판 담당관은 왕의 얼굴을 볼 기회조차 없어서 일을 잃게 되었다.

걱정과 비판 담당관이 할 일을 잃게 된 것은 왕부터 길거리의 노인들까지 그가 하는 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걱정과 비판보다는 긍정과 칭찬이 사회의 성장에 더 큰 에너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귀에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회는 반드시 중병(重病)에 걸리고 부패하고 끝내 허물어졌다.

반면 위대한 왕들의 곁에는 반드시 존중받는 걱정과 비판 담당관이 있었다.

걱정과 비판 담당관이 존중되고 존경받는 사회는 결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글 제공: 대중회 관리부장

# 2018年 戊戌年 春享祭 奉行

## 大宗會 主管 享祀

### 文林郎公(諱 洪孚) 春享奉行

2018년 04월 06일(寒食)



	始祖	配位
▶ 初獻	상현(相賢)	
▶ 亞獻	수길(修吉)	우정(宇正)
▶ 終獻	완택(琬澤)	재혁(在赫)
▶ 大祝	원섭(遠燮)	
▶ 執禮	상철(相喆)	

### 閣門祇候公(諱 淵) 春享奉行

2018년 04월 26일(음 3월 11일)



	閣門祇候公	配位
▶ 初獻	대평(大平)	
▶ 亞獻	응식(應植)	재구(載求)
▶ 終獻	재봉(載奉)	재호(載鎬)
▶ 大祝	상홍(相弘)	
▶ 執禮	언태(彦泰)	

### 靑華府院君公(諱 龍) 春享奉行

2018년 04월 28일(음력 03월 13일)



	靑華府院君公	配位
▶ 初獻	현근(玄根)	
▶ 亞獻	재호(載鎬)	
▶ 終獻	호식(好植)	
▶ 大祝	상호(相昊)	
▶ 執禮	언태(彦泰)	

## 大宗會 主管 享祀

### 靑華府院君配位金氏 春享奉行

2018년 04월 28일(음력 3월 13일)



	靑華府院君配位金氏
▶ 初獻	상현(相賢)
▶ 亞獻	홍섭(洪燮)
▶ 終獻	중혁(鍾赫)
▶ 大祝	상호(相昊)
▶ 執禮	언태(彦泰)

### 靑城伯(諱 德符) 春享奉行

2018년 04월 30일(음력 3월 15일)



	靑城伯	配位仁川門氏
▶ 初獻	대평(大平)	정구(鼎求)
▶ 亞獻	상열(相烈)	양섭(良燮)
▶ 終獻	상현(相賢)	동섭(同燮)
▶ 大祝	홍섭(洪燮)	홍섭(洪燮)
▶ 執禮	언태(彦泰)	

###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春享奉行

2015년 05월 02일(음력 3월 17일)



	靑城伯 配位 淸州宋氏
▶ 初獻	대평(大平)
▶ 亞獻	언촌(彦村)
▶ 終獻	광보(光輔)
▶ 大祝	철유(哲裕)
▶ 執禮	언태(彦泰)

## 小宗會 主管 享祀

### 岳隱公(諱 元符) 春享奉行

2018년 05월 10일(음력 3월 25일)



	岳隱公(諱 元符)	配位
▶ 初獻	재대(載大)	
▶ 亞獻	성보(聖輔)	재상(載尙)
▶ 終獻	상화(相和)	상하(相夏)
▶ 大祝	완택(琬澤)	
▶ 執禮	동섭(東燮)	

### 五世祖 都摠制公 春享奉行

2018년 05월 02일(음력 3월 17일)



	都摠制公
▶ 初獻	상현(相賢)
▶ 亞獻	중혁(鍾赫)
▶ 終獻	규완(揆完)
▶ 大祝	철유(哲裕)
▶ 執禮	상호(相昊)

### 六世祖 良惠公 春享奉行

2018년 05월 05일(음력 3월 20일)



	良惠公	配位
▶ 初獻	찬구(贊求)	구형(求亨)
▶ 亞獻	상직(相直)	영섭(榮燮)
▶ 終獻	중식(鍾奭)	영보(英輔)
▶ 大祝	홍섭(洪燮)	홍섭(洪燮)
▶ 執禮	재구(載求)	재구(載求)

### 仁順王后(明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8년 4월 29일



	仁順王后(明宗大王 妃)
▶ 亞獻	우철(愚哲)

### 端懿王后(景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8년 3월 8일



	端懿王后(景宗大王 妃)
▶ 亞獻	창보(昌輔)

### 淑容沈氏(成宗大王 妃) 春享奉行

2015년 4월 08일



	淑容沈氏(成宗大王 妃)
▶ 亞獻	종복(種福)

## 2018년 春享 獻誠金 接受 內譯

구 분	宗中(姓名)	金額	宗中(姓名)	金額	구 분	宗中(姓名)	金額	宗中(姓名)	金額
始祖 (청송)	도총제공종회	200,000	대구종회	200,000	四世祖 (연천)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철원봉익대부공종회	200,000	청주종회	100,000		인수부윤종회	300,000		
	경남 남해군중진회	300,000	울산내금위종회	200,000		計		700,000	
	計			1,200,000		四世祖 配位 (청주)	도총제공종회	200,000	안효공종회
二世祖 (함열)	도총제공종회	100,000	전북종회	100,000	計		50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대전·세종·충남종회	100,000	四世祖 壇 (청송)	서울 악은회	300,000	재상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아산진사공종회	300,000		대구종회	200,000	진주 동섭	100,000
	計			1,200,000		고문 우영	100,000	창섭	100,000
三世祖 (안성)	도총제공종회	100,000	안효공종회	300,000		부회장 상화	1,000,000	상만	50,000
	인수부윤공종회	300,000	청주종회	100,000	상희	100,000			
	計			800,000	計		2,050,000		



# 2018학년도 청송심씨대중회 장학생



심한길  
산업고



심산  
진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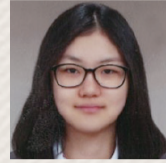
심민경  
증평정보고



심호영  
세광고



심규민  
지족고



심민정  
충남여고



심서연  
우송고



심유진  
가오고



심수정  
외국어고



심지섭  
경북대사설고



심영서  
부산관광고



심수현  
정보관광고



심지혜  
부산관광고



심규택  
원주고



심은정  
상지여고



심서영  
횡성여고



심수진  
횡성여고



심성보  
원주고



심주노  
대성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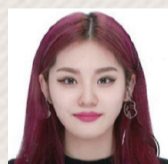
심은빈  
대구보건고



심현주  
경기대



심기찬  
카톨릭대



심현수  
명지대



심준용  
상명대



심소운  
성균관대



심정윤  
수원여대



심기민  
한국예대



심선보  
한양대



심우섭  
서울사범대



심명기  
한성대



심재현  
단국대



심수빈  
삼육대



심우석  
순천향대



심규민  
충남대



심우용  
우송대



심용석  
전남도립대



심지예  
광주보건대



심정민  
광주보건대



심성철  
강남대



심명보  
전북대



심현진  
전주대



심휘용  
전주비전대



심선도  
한서대



심지훈  
영남대



심형준  
카톨릭대



심정화  
대신대



심석현  
경일대



심상한  
대구대



심준엽  
한남대



심승섭  
경북대



심지혜  
경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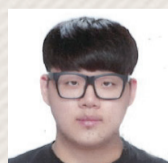
심미경  
진주교대



심예린  
인제대



심상우  
문성대



심규보  
대덕대



심승보  
고려대



심소영  
신라대



심상호  
해양대



심진보  
배재대

종회탐방  
시리즈  
(39)

## 7세조 (내자시) 판관공(判官公,諱:潏) 종회 탐방



심 상 열  
판관공종회 회장

◆ 1447년(세조 13) 5월, 함경도 함흥 땅 어디에선가 점마별감(點馬別監) 심원이 순직했다.

- '순직한곳을 알지 못해 시신을 찾지 못하였기에, 초혼장(招魂葬)으로 모시다' ([선조실록] 27년(1594) 5월 26일, 심충겸 발언).

판관공은 점마별감으로 공무 차 출장을 갔다가, 이시애 난 진압에 합류 한 뒤 함흥에서 전사하였다. 그 후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초혼장으로 묘소를 조성했던 곳. 그곳을 향하는 후손의 마음이 착잡하다. 구과발역에서 갑택 문화이사님과 만나 중복 일가의 차량으로 '명덕재'에 도착하였다. 덕이 밝게 빛난다는 재가 '명덕재(明德齋)'. 정성들여 산뜻하게 짓고 뒤의 묘역 또한 잘 가꾸어져 있었다. 상직 고문님과 상렬 현 회장을 비롯해 일가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묘소를 참배하고 제실에 모여 앉았다.

- 종종 연혁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관공께서 순절하신 후 하사받은 사패지(賜牌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1971년 파종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종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문(상직, 상후), 회장(상열), 부회장(양섭, 근섭), 이사(인보, 영섭, 완섭, 재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판관공 沈 潏(원)의 계보와 행적 : 흥부-연-용-덕부-운-회-판관공(潏)으로 계승되었고, 판관공의 형으로는 참의공 인(滌)과 이경공 한(瀚)이 있다.

서 기	나 이	주요 관직
1437(세종 19)	1	출생(경북 선산의 康居敏(康主簿) 댁에서 출생) 門蔭으로 관직에 나감
		<정부인 전주 이 씨> -- 副司正 원산군 李義堦의 女 -- 1441년생(세종 23)~1509년(중종 4) 5월 서거. (판관공과 합장) -- 3남 2녀를 둬 자 : 순도, 순경, 순문 녀 : 사위 鄭洵, 李敦(임영대군의 3子인 定陽君의 아들)
1467(세조 13)	31	점마별감으로 이시애 난을 진압하러 출정하여, 함흥에서 순절
		* 아들 호양공(순경)이 정국공신이 되자, 이경공이 이미 좌리공신에 책봉된 바 있으므로, 移諡 하여 '순충적덕보조공신'에 이조참판으로 증직됨 ('판관공 묘비명') * 議政府 左贊成 : 손자 連源이 귀하게 되어 증직됨 ('심연원신도비')

### ◆ 이시애 난이란?

1467년(세조 13년), 세조의 집권에 반대하여 길주를 근거지로 삼아 이시애(李施愛)가 일으킨 반란이다. 세조는 구성군 준(浚)을 진압 책임자로 삼아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에 나섰다. 4개월 만에 이시애가 처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세조대 후반기에 지방 세력이 일으킨 반란인 것이다. 지방 반란에 놀란 세조는 이 난을 진압한 후에 '유향소'를 폐지하고 함길도를 남북으로 양분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 ◆ 이시애의 반란을 진압한 이경공(瀚)과 판관공(潏) 형제 -

### 세조대왕의 울타리가 되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아우인 판관공은 순절(殉節)하였고, 형남인 이경공(瀚)은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웠다. 이로 인해 세조 대왕의 극진한 존숭을 받는 가문이 되었다고 하겠다.

출정한 판관공은 "土官 이중부와 이시애의 族親 全叔孫 등 5부자들 등 옥에 가두는 등([세조실록] 13년 5월 29일)" 큰 활약을 보였으나, 창졸간에 죽음을 맞으신 듯하다.

시신을 찾은 한 사례가 있다. 판관공과 같이 출정해 순절한 손욱(孫旭)은, 그 동생인 손소(孫紹)가 형의 시신을 찾으려 종군하였다. 그리고 시체 더미 안에서 형의 시신을 찾아 반장(反葬)하였다([연려실기술]세조조 고사본말, 이시애난).

판관공의 순절 후 그 유체를 찾으려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집안에 구전되는 얘기를 전하는 상직 고문님. "전해오기를, 반란군들이 진압군 간부들은 목을 베어 빨래 줄에 죽 걸어놓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판관공의 옷가지와 검(劍) 등으로 묘소를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 판관공 종회의 연중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이사회는 년 1회 열 되, 필요 시 마다 소집한다. 그리고 음력 10월 첫 째 일요일에 祭享을 모신다. 나아가 묘역 별초는 년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잡초를 제거한다. 그리고 산 짐승들이 묘역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였다."

### ◆ 적개공신(敵愾功臣) 명단에 왜 판관공이 없을까?

세조는 이시애 난을 진압한 후 그 공신 45명을 '적개공신'이라는 명목으로 책봉하였다. 많은 특전이 따르는 공신! 그런데 왜 이 난을 평정한 데 대한 공신 명단에 이경공과 판관공의 이름이 없는가? 위에서 언급한 손소는 형의 시신을 찾고 싸운 공로인지, 적개공신 2등으로 책봉되었다([세조실록] 세조 13년 9월 壬午). 전사한 손욱이나 판관공 심원 선조는 공신 책봉에서 빠진 셈인데, 우리 후손들로서는 좀 의아하고 서운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 앞으로의 판관공 종회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명덕재를 건립하면서 예산 문제로 곡담과 삼문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세울 예정인데, 종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 판관공 종회의 자랑거리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명덕재'를 2011년에 건립 한 일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충효원(忠孝苑)을 조성하여 판관공의 아드님이신 도정공(順道) 이하 선대 조상들의 묘소를 천장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대한 사업들은 상직(相直) 고문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기에, 중의를 모아 2017년에 공적비(功績碑)를 명덕재 옆에 세웠다."

### ◆ 판관공의 후손들이 번창하다.

공의 아드님이신 도정공(順道), 호양공(順經, 출계), 사인공(峴門)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인순왕후와 단의왕후 그리고 숙용 심 씨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청송 심 분이 자랑하는 정승 13명 중 9명이 공의 자손이니, 이 사실만으로도 공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 ◆ 탐방을 마치며

지금도 판관공, 이경공 묘소 아랫마을 鄉老의 말에 의하면 심공고를 이라고 전해온다고 한다. 두분의 선조 재각과 후손들이 묘하에 궁궐 같은 저택을 지어 사시였나 보다. 지금은 시궁골 로 부르고 있다. 파주와 김포 지역은 많은 선조님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다. 심 씨 문중의 텃밭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조선왕조에서 청송 심 씨가 대명문가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판관공을 비롯해 선조들이, 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훈구파의 전형적인 가문이었던 것이다. 판관공 종회를 비롯한 모든 종친 모임들이 자자손손 성세를 이루어 청송 심문의 위상을 높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탐방을 마친다.

필자 : 심재석(내자시판관공 18대손, 증보편집위원)  
동행 : 심갑택(대종회 문화이사)



판관공 (諱:潏)의 묘



종회탐방 회의모습



명덕재 앞에서

# '나'의 부리를 찾아서



**심 송 보 (沈松輔)**  
26대손 온양공파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초여름의 햇살이 비치던 2018년 5월 26일 아침, 나는 가방을 챙기고 동이 틀 때 집을 나섰다. 청송 심문의 분향인 청송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몸은 피곤했지만 기대를 가득 안고 청송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약 4시간여를 달려 청송에 소재한 주왕산 관광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 세미나실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미나실로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가지마자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셨구나' 였다. 부모님께서 여건이 안 되셔서 같이 오지 못했지만, 자리를 빛내주신 수많은 청송 심씨 일가 분들을 보고 또 여러 의미 있는 체험을 해보니, 부모님과 함께 못 간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장학금 수여식은 심대평 대종회 회장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세 가지는 '선택하는 삶을 살아라', '저인통장' 그리고 당신의 좌우명이신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 였다. 옛날부터 명문가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으며, 세상을 바꾸어나갈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었다. 회장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반면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처럼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으며 떠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반드시 후자 같은 사람이 되어 청송 심씨 가문을 빛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회장님께서 장학금 100만원이 그냥 금전적 의미의 100만원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와 관련하여 저인통장을 말씀하셨는데, 저인통장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저장하는 통장이다. 돈은 통장에서 쓰면 그만이지만, 사람에게에는 배풀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아진다고 하셨다. 나의 조상님인 청송 심부자도 평소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으로 덕이 높았다는데 이런 나눔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에 한 말씀은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 라는 것이었는데, 살다가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

지 않는 의지만 있다면 다른 길이 열리며 그 길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회장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나니 이 자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상으로 나가 상을 받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의 뿌듯함을 느꼈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난 후 가장 먼저 발길을 옮긴 곳은 만지송이었다. 한눈에 봐도 수령이 많아 보일 만큼 크고 웅장한 나무로, 푸른 소나무라는 뜻의 청송(靑松)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깎아지른 산비탈 위에 홀로 서있는 늠름한 모습은 우리 청송 심씨 가문의 기개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 목적지는 중대산소로, 조상님으로 추정되는 묘소에 참배를 드리고 찬경루로 향했다. 찬경루는 '우러러 찬미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찬경루의 기둥 중 하나는 팔각기둥인데, 이는 당시에 왕명에 따라 국가가 지은 건물임을 상징하는 표시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이 소헌왕후를 배출한 경사를 기리기 위해 운봉관(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시설)의 마당에 재각을 짓도록 명령한 것인데 이는 그 당시에 정말 흔치 않은 사례였다. 찬경루를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심씨 가문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찬경루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있는데, 8간으로 이루어진 찬경루는 세종의 8명의 대군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세종대왕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이 직접 송백강릉(松柏岡陵)이라는 글씨를 하사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서도 청송 심씨가 얼마나 고귀한 가문인지 알 수 있었다. 찬경루와 운봉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조 심흥부의 묘소에 도착했는데, 시조묘소를 보자마자 정말 장관이라고 생각했다.

묘소의 크기가 왕의 무덤을 의미하는 능을 생각나게 할 만큼 크고 웅장하였다. 옛날에는 모두 청송 심씨의 소유였다던 넓게 펼쳐진 보광산과 그 주변 산들을 보니 그 순간만큼은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잠시 잊었던 것 같다. 내려오는 길에 보광사의 주지스님께서 보광사와 청송 심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광사는 명문가였던 청송 심씨를 위해서 기도를 올리던 수호사찰이라고 하셨다. 백제 왕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왕흥사 같은 절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문만을 위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에 한번 더 놀라고 자부심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송소고택으로, 청송 심부자로 불리던 송소 심호택의 호를 딴 99칸의 저택이었다. 조선 3대 고택 중 하나로 고택 중 유일하게 내외담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감명 깊었던 부분은 고택의 크기나 웅장함이 아니라 청송 심부자의 마음가짐이었다.

만석 부자였던 그는 아침에 산에 올라가 마을을 굶어보고, 굴뚝이 나지 않은 집에 쌀을 무료로 나누어줬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고택의 굴뚝에 연기가 나는 모습은 최대한 밖에 노출되지 않게 설계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정말 사려가 깊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푼 덕에 활빈당의 공격도 받지 않았으며, 나라가 위태로웠던 시기에는 국채보상운동에 큰 돈을 쾌척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에는 보기 힘든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심씨 가문이 추구하는 정신이 담긴 송소고택에서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아와 견학을 끝마치고 세미나실에서 뿌리교육이 있었는데, 심재석 문학박사님이 강의를 하셨다.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송 심씨가 얼마나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가문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교육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인 나는 우리 가문이 배출해낸 훌륭한 조상님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나의 착각이었다. 나의 무지를 느끼며, 이제라도 우리 가문을 빛내신 조상님들을 가슴 속에 새기자고 다짐하며 13상신과 3왕후의 휘(諱) 한 글자 한 글자를 큰 소리로 또박또박 발음해보았다. 교육을 같이 받은 사람들과 처음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서로 서먹했는데, 청송 심씨라는 구심점으로 뭉쳐 휘를 다같이 발음하던 순간에는 세미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아는 사람 같았고, 내 가족 같았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고, 다시 만날 때는 서로 반갑게 인사할 것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대종회의 뿌리교육을 통해 청송 심문이 훌륭한 가문이라는 것과 우리 세대가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영광을 마음속에 새기되 이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어 우리 가문을 빛내는 것이다. 대종회 회장님께서 다른 사람이 성씨를 물어보면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저는 청송 심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교육으로 인해 얻은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단순한 장학금이나 지식이 아니라 나라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고, 이는 나의 뿌리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후손들에게 뿌리교육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청송 심씨 대종회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드리고, 금전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각종 찬조현황 2018. 3. 28 ~ 2018. 5. 25

이사회분(7년분) 50,000 강섭(김포), 재영(부산), 총택(금천)  
회장회비 3,000,000 대평  
부회장회비 300,000 상국, 정보, 일용  
이사회비 50,000 현석(대구), 광보(충북), 의철(갈매동), 성택(대구), 상복(청송), 종섭(임천면), 김택(청송)  
정식(광주), 재금(정릉), 원보(과천), 규일(경기), 상우(광주), 영구(울산), 용구(울산), 응보(울산), 진식(광주)  
무식(삼척), 철유(안성), 일섭(삼천동), 규선(대전), 철용(대전), 봉섭(대전), 재덕(응암동), 영섭(안성), 상원(경북)  
상영(김포), 인보(충북), 재근(경북), 상희(경북), 상국(경북), 능광(경북), 재충(경북), 원섭(경북), 상하(철원)  
재택(철원), 상민(철원), 상홍(김포), 종복(서울), 원식(서울), 우식(경기), 창보(서울), 재구(서울), 문식(경기)  
원보(김포), 재덕(부산), 상도(전북), 홍식(충남), 윤섭(김포), 재문(경기), 영섭(수원), 안춘(수원), 대섭(경기)  
상찬(양평), 상보(양평), 춘섭(강원), 준보(서울), 상렬(원주), 재용(광주), 민택(강원), 상소(강원), 우섭(서울)  
광보(용인), 춘보(서울), 훈(대구), 상배(대구), 화섭(강원), 재욱(경북), 대석(인천), 재덕(경북), 재호(경북)  
삼규(서울), 보섭(파주), 재복(청주), 종래(청주), 재혁(청주), 재춘(서울), 인섭(서울), 봉섭(서울), 종충(경기)  
광섭(강남), 상한(서울)

### 임원회비

### ■ 중보·장학찬조 50만원 이상 찬조시 2회 사진게재



안효공파중회 회장 명욱	울산내금위중회 회장 규화	상욱 캐나다중회장	어비리중회 회장 석문	진천월촌중회 회장 상영
중보찬조 500만원 2018년 4월	중보찬조 150만원 2018년 4월	중보찬조 50만원 2018년 3월	중보찬조 50만원 2018년 2월	중보 장학찬조 50만원 2018년 2월

### 중보찬조

5,000,000 안효공파중회(회장 명욱)	100,000 극택(경기), 진주중회(회장 윤수)	60,000 감채(전남)	30,000 재화(진주), 성용(부산), 순식(울진읍)
1,500,000 울산내금위중회(회장 규화)	단성목공중회(회장 재화), 기섭(서울)	50,000 기보(수원), 재일(하동), 종선(서울)	20,000 원섭(창원), 영무(서울), 문식(대전)
300,000 청주중회(회장 재룡)	80,000 재충(남양주)	문석(일산), 병은(경기), 용래(서울)	재홍(경기)

# 2018년도 뿌리교육 행사보고

- 일 시 : 2018년 5월 26일(토)
- 장 소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315(주왕산관광호텔)
- 참석인원: 140여명

2018년도 뿌리교육이 대중회 선발 장학생 및 많은 일가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장학증서 수여를 마치고 시조묘소 참배와 사적을 돌아보며 선조님이 이루어 놓으신 문화와 전통을 재발견하고, 빛나는 문화적 유산을 견학

하면서 선조님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에 모두가 자랑스럽고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선조님이 이룩하신 업적과 높은 인격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하여 발전된 나를 만들고 나아가 청송심문을 빛내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 참석한 학생들은 심문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앞으로 우리 심문의 빛나는 미래를 영원히 이어나갈 기둥이 될 것이다.



심대평 회장 인사말씀



장학증서 전달



시조묘소 앞 단체사진

## 청송심씨 6세조 회(滄)공숙공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지난 4월 9일 공숙공종회의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총택 신입회장은 취임사에서 일가간의 화합과 송조돈목을 강조하고 종회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임 총택 회장의 취임사

## 제40회 人壽府尹公派宗會 정기총회

지난 5월 8일 인수부윤공종회 정기총회가 망세정공 제향 후 재실에서 개최 되었다.

심정구 인수부윤공종회 회장의 인사에 이어 2017년도 회계결산 및 2018년도 수지 예산 편성 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 지난호(130호) 정정

- 3면: 세종장현 → 세종장현(憲)
- 7면: 합문지후공(안분음) 시에서 6번째 줄에 삼입 月不相期夜夜隨(월불상기야야수) 달도 약속이나 했듯이 밤마다 나를 따르네.

### 송금안내

임원회비 · 증보찬조 · 장학찬조 · 족보대금 등 입금계좌

청송심씨대중회

농 협 : 301-0107-5873-71

### 공 고

## 端午節祀 奉行 및 定期總會 開催

2018년도 안효공 단오절사 봉행 및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전 10시: 단오절사 봉행, 11시: 정기총회 개최>

나. 장 소 :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401번지 (안효공 묘전 재실)

다. 부의 안건 : 1. '17년도 결산승인 및 '18년도 사업예산(안) 승인의 건  
2. 의결권 위임 및 감사선임, 회장 추인의 건

마. 기 타 : 전국 각 지역 및 지파종회에서 단체로 참여하실 경우는 참석인원을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1-253-8060, 253-8040, 팩스031-254-8066)

靑松沈氏安孝公派宗會 會長 沈 明 玉

### 감사인사

5월 26일 청송에서 실시한 뿌리교육을 본향에 계신 여러 일가님의 지원과 배려로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송의 맛있는 사과즙을 기증 해주신 상암 일가님께도 감사드리며, 대중회로 구매 문의가 많아 지면을 통해 안내해드립니다.

경북 청송군 부남면 구천리 (구천역기스) 심상암  
☎ 010-9235-7192



## 靑松沈氏 2世祖 閤門祗候公 位土還收 功績碑

청송심씨 2세조 합문지후공 휘 연 (閤門祗候公 諱 淵)의 합열 남당산 위토(位土)가 본래 약 3만여 평(坪)이 있었으나 1949년 6월 21일부터 법률 제31호에 의거 시행된 농지개혁법에 의거 잔여 9두락(斗落)까지 모두 소작인의 소유로 된 것을 관리인이었던 사일(士日)씨가 당시 논산 제2훈련소장 언봉(彦奉) 장군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던 바, 언봉 장군이 당시 육군 소위 광택(廣澤)씨에게 은행에서 일금 일십육만오천 원을 융자받도록 하여 삼십만 원을 들여 소작인에게 지불하고 위토를 다시 찾았으며, 이와 함께 퇴락(頽落)한 재실(齋室)도 완전히 수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휘 언봉(諱 彦奉)·휘 광택(諱 廣澤)의 성(姓)은 심(沈)이요 본관은 청송(靑松)이며 시조는 고려 문림랑 위위시승(衛尉寺丞) 휘 홍부(諱 洪孚)이다. 휘 언봉(諱 彦奉)은 4세조 청성백 휘 덕부(諱 德符)의 5자(子)인 안효공 휘 온(安孝公 諱 溫)의 18대손이며, 9세조 수찬공 휘 달원(修撰公 諱 達源)의 14대손으로 1922년에 생하시어 1954년에 추하시었다. 헌병사령관과 논산훈련소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중장으로 예편하였다. 휘 광택(諱 廣澤)은 4세조 악은공 휘 원부(諱 元符)의 장남이신 영동정공 휘 천운(命同正公 諱 天潤)의 17대손으로 1919년에 생하시어 2003년에 추하시었다. 6·25에 참전하여 대통령상과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상하였으며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여 부산종회 고문(顧問)을 역임하였다. 투철한 송문상조(崇門尙祖)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비(私費)를 들여 합문지후공(閤門祗候公) 위토를 환수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두 분의 빛나는 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에 공적기록을 남긴다.  
2018. 5.



靑松심씨대중회 謹啓

### 금지사항

- 1) 각종 찬조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을 경우 필히 대중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증보찬조 지료용지는 3월과 9월 증보에 동봉 발송합니다. (찬조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발적 참여임을 알려드립니다)
- 3) 모범종인 소개를 위한 종인탐방이나 종회활동을 전국종인들에게 소개하는 종회탐방을 희망하시는 종인이나 종회는 갑택 문화이사에게 신청 바랍니다.
- 4) 2000년도에 발간된 대동세보(경진보)를 대폭 할인하여 1질(총11권)에 6만원에 보급 합니다.
- 5) 대중회 회장단 및 이사님께서는 임원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